

대학 아카이브즈¹⁾ 설립 활성화를 위한 방향 모색

전 상 숙*

1. 머리말
2.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3. 외국의 대학 아카이브즈
4. 우리 나라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 현황
5. 우리 나라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의 기본 방향

1. 머리말

이 글은 2000년도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논의되고 있는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에 대하여 기본적인 문

* 이화여대 강사

주요논저 : "U.S. Korean Policy and the Moderate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The Coming of the Cold War to Korea*, Boston : Peter Lang co., 근간 ; 「식민지시대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한국정치학회보』 31집 4호

- 1) 현재 문서보존소, 문서보관소, 문서관, 기록관, 자료관 등 다양한 용어가 영어 '아카이브즈'(Archives) -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 참조 - 를 의미하는 것

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의 활성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9년 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 5709호) 제9조와 동 시행령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대학에 아카이브즈(“자료관”²⁾)을 설치, 운영 해야 한다. 이 조항은 그간 교사편찬의 필요에서 학교관련 자료수집 작업을 하던 각 대학에 ‘기록학’ 협동과정 설치와 더불어 도서관 또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대학 아카이브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한편, 그 설치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상기 법령과 동 시행령에서 자료관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국·공립대학³⁾을 제외한 많은 사립대학들은⁴⁾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아카이브즈가 의미하는 것에 딱히 적합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아카이브즈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에 대신할 적합한 용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합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아카이브즈’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자료관’이라는 용어 사용. 주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료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이 명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하여도 좋을 듯 하다.
-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거하여 ‘자료관’을 설치해야 할 공공기관으로 국·공립대학을 명시하고 있다.
- 4) 사립대학의 경우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5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령이 지정하고 있는 자료관 설치의 일차적인 대상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각 사립대학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동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규제에 대한 근거내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자료관 설치와 설치의무를 이행해야 할 바에 대하여는 해석이 분분하고, 회의적인 관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법안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법령과 시행령에 대한 해석, 이것을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논의와 작업에 대한 관심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카이브즈(자료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정이 그러하듯이 '대학 아카이브즈'의 구체적인 형태나 구조, 운영 방침, 내용물 등에 대하여 참조할만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0년도 5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한 공공기관의 자료관 설치·운영지침'을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그러나 각주 네 번째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무사항에 따른 규제나 불이익에 대한 근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준하는 성과는 관심에 비하여 매우 미미하고,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⁵⁾

그럼 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의 문제가 화두로 제기되는가. 이는 대학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상아탑으로서의 위치와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보면 분명해 진다. 굳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지도적 역할과 그 성과를 논하지 않더라도 대학의 존재이유와 역할, 과거와 현재, 나아가 앞으로 나아갈 바 등을 논하는 것으로부터 학내 민주화운동 등 대학 내부 문제들을 투명하게 처리해 갈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그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상을 만들고, 그것을 설립, 운영하는 일은 사회의 민주화와 그 정착을

5) 이 지침서의 '자료관 운영 인력배치 기준' 항에서는 1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아키비스트)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소속 기관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에는 2010년 말까지 확보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는 대학 아카이브즈가 기존의 대학도서관이나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실질적으로 연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 추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위하여 공공기록을 보존·관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고봉이라 할 대학의 학내 민주화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그 기본 개념 또는 의미를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학 아카이브즈의 내용은 어떠하며, 그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그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대학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카이브즈’(Archives)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즈라는 용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1) “공공기록물(public records) 또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historical documents)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 (2) “보존된 역사적 기록(historical record) 또는 문서(document)”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혼용·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아카이브즈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기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관이 취급하는 ‘자료’를 의미하는지 명시하여야 불필요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혼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각 국의 제 학자들이 정의한 아카이브즈 개념을 분석한 T. S. Schellenberg⁶⁾ 아카이브즈란 “참고 및 연구목

6) 기록학 또는 기록관리학에서 T. S. Schellenberg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는 이

적을 위하여 영구보존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록보관기관에서 소장하거나 소장하기 위해 선별한 모든 공적·사적 기관의 기록"이라 정의하였다. 즉 그 본질적인 특성은 기록물(records)이 만들어진 이유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브즈로 되는 기록물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산되고 축적된 결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아카이브즈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록물사료(public archives)'는 그것을 생산한 기관에 대하여 일차적 가치를 가지며, 이차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닌(비정부적인) 사용자들에 대하여 가치를 갖는다.⁷⁾ 이와 같이 아카이브즈의 본질적인 특성은 곧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이 그것을 만들어 낸 이유와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된다. 이로부터 아카이브즈는 그 존재 이유 이상의, 그와 연관된 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활용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위에서 정의한 아카이브즈의 개념으로부터 볼 때, 대학 아카이브즈는 "각 단과 대학이나 종합대학이라는 기관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아카이브즈는 그 존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원(information resources)을 통합적으로 관리·경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의 발전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들을 보존하여 대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를 보증"한다.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의 존재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이나 결정된 정책 그 자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

원영, 「Theodore R.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 Principles and Techniques」 『기록학 연구』 창간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0, 서평 참조

7) T. S.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2nd ed.,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Kansas, 1998, p.16

유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과정과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는 것이다.⁸⁾ 이것이 곧 대학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존해야 할 이유와 직결된 대학 아카이브즈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기능과 사명에 해당하는 의미는 대학이라는 기관의 존재이유로부터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기관’ 즉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의 사명으로부터 논할 수 있는 대학 아카이브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⁹⁾ 첫째, 전반적인 대학 구조를 이루고 유지하는 행정기관의 기능 수행이 수월하도록 보조한다. 둘째, 기록물 가운데 대학이 만들어 냈다는 것을 확신시킬 만한 필수적인 것을 가려내어, 기록물의 형태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관의 존재에 필수적인 증거물들을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대학의 사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고취시키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바람직한 교과과정을 육성·강화시키는 것을 보조한다. 여섯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교수, 학생, 교직원)과 기타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조한다. 일곱째, 소장 기록물 사료를 활용하여 지식을 발견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해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대학 아카이브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증거 유산을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설비, 보유물, 인원, 정책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¹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본적 목적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데”

8) 「Guidelines for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1998), p.1, <http://library.wustl.edu/>

9) *Ibid.*, pp.1-2

10)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The Scarecrow Press, Inc.: Metuchen, N. J. & London, 1992, p.17

있다. 동시에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 공동체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적 사명에 기여한다는 사명과 동시에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 아카이브즈는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과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물 사료를 활용하는 학자와 일반 대중을 보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¹¹⁾ 그러면 이러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 대학 아카이브즈는 어떻게 발생, 발달하였는가.

3. 외국의 대학 아카이브즈

다른 아카이브즈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대학 아카이브즈의 최초 형태는 15세기 중반 경 포르투갈에서 의식적으로 대학문서를 보존·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중세와 근세 유럽의 대학사로부터 대학 아카이브즈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설치나 창립 등 역사적 경위를 증명하는 문서·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할 필요(예를 들어 학위 수여권의 근거를 밝히는 교황 칙허장이나 교황의 지배권을 증거하는 연방군주의 문서 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 (2) 도시의 법에 대항하는 대학의 법적 근거를 나타내는 서류나 학내 재판 기록 등을 보존해 두어야 할 필요. (3) 교회나 제후로부터 기부받은 토지와 같은 대학재산을 확인·보존하기 위하여 기록을 보존할 필요 등이다. 곧 대학 아카이브즈는 - 교회·기업 아카이브즈 등과 마찬가지로 - 학술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와 필요에서 발생·발달하였다.¹²⁾ 앞에서 아카이브즈의 개념을 살피면서 본 바와 같이, 대학 아카이브즈 역시 출발부

11) *Ibid*, p.18

12)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ヴズ(archives)とはなにか」 『東京大學史紀要』 4, 東京大學百年史編纂室, 1983. 7, 1 - 2쪽

더 대학의 기록물이 만들어진 이유,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되는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학의 존재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대학 아카이브즈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대학 아카이브즈의 형성은 “골동품연구나 도서관 또는 족보학의 전지에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¹³⁾

그로부터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에 걸맞는, 보다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며 조직적·근대적인 형태로 대학 아카이브즈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일반적인 아카이브즈가 설립된 다음의 일이었다. 유럽에서는 기타 아카이브즈 설립이 보편화된 183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근대적인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이 이루어졌다.¹⁴⁾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여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보급에 힘입은 것이었다.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의 중요한 기념식(100주년 기념식 등과 같은) 등을 계기로 하여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대학의 존재와 존재이유를 증거하고, 그 필요를 홍보할 목적에서 급속하게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대학 아카이브즈가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아카이브즈만의 독특한 기록물 사료에 대한 보존·관리 방법과 시각을 발전시켜왔다.

대학 아카이브즈의 조직이나 기능과 관련하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문직화가 가장 잘 발달된 곳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아키비스트 전문단체(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이후 SAA로 기재)가 1936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사료조사원(Archivist)이라는 직종이 도서관 사서와 나란히 전문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SAA의 산하 단체로 대학 아카이브즈의 전문부회(Committee on College and University

13) W.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p.7

14)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ヴズ(archives)とはなにか」, 2쪽

Archives)도 설립되어 있다.¹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 대학 아카이브즈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사회의 발달과 그에 힘입은 고등교육의 보급을 배경으로 하여 대학이 팽창하게 되면서였다. 대학의 팽창으로 다양한 새로운 대학 기관들이 설립되자, 방대한 대학 내부의 역사를 증거하고 내부적 일체감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아카이브즈에 대한 수요와 설립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이전보다 훨씬 폭넓게 대학 밖의 사회와 많은 부분 연관되어 진행되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촉발시킨 것은 1950년대, 60년대 경제성장기에 그 영향으로 많은 대학들이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주요 기념식을 기획하면서였다. 주요 대학들이 기획한 100주년 기념식, 150주년 기념식 등은 대학의 기록물, 특히 대학의 역사를 기술할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긴급한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대학 아카이브즈를 설립하는 일은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직면한 대학의 뿌리 찾기, 즉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심을 실재화하는 상징이자 실질적인 증거로 기능하였다.¹⁷⁾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에 적응해야 할 대학의 필요가 한편으로는 변화의 방향과 함께 변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존재해야 할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대학 연혁사를 편찬하는 가운데 대학 아카이브즈가 설립되어 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15) 같은 책, 2쪽

16) W.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pp.7 - 8

17) *Ibid.*, p.8

대학의 아카이브즈(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아카이브즈)와 같이 1875년 학교 설립과 동시에 출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학사 편찬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인 하바드대학 아카이브즈 역시 1836년 대학 이백년사 편찬을 계기로 하여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중요성과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학내 인식이 고조되어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으로 이어졌다.¹⁸⁾ 하바드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바드대학 아카이브즈¹⁹⁾는 대학 도서관의 한 부서로서, 대학사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소장하는 기록보존소이자 다양한 대학 사무실의 기능을 돕는 행정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대학 기록보존소로서, 하바드 대학 아카이브즈는 소장물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소장하고 있다. (1) 공식적인 대학 기록물 : 대학의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 생산된 각종 기록물들과 의사록, 편지, 재정 기록, 인쇄물 등. 이것들을 생산된 행정 단위별로 정리·보존한다. (2) 대학 출판물 : 정기 간행물, 총장·회계 담당자·감리자 등의 보고서, 카탈로그, 지도, 기자회견문 등 대학의 공식 인쇄물과 대학 출판소의 출판물을 포함한다. (3) 학사·석·박사학위논문, 학술상 수상 논문 등 대학이 생산한 논문류. (4) 일반 참고물 : 교과과정, 학생 생활, 행정기관, 교육부서, 학생 등의 조직, 학생·동창회보 등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인쇄물 또는 필사본. (5) 전기물과 대학 임직원들에 관한 기록물: 동창·스태프, 대학 관련 개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 기록물; 대학 임직원들이 간행하였거나 그들에 대하여 간행된 간행물; 임직원들의 왕래 서신 등의 기록물. (6) 시청각물 : 대학의 활동·그와 관련된 사람·장소에 대한 사

18)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ヴズ(archives)とはなにか」, 3-4쪽

19) 이하의 하바드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내용은 <http://hul.harvard.edu/huarc/xho1-sum.htm>에서 참조하였음

진, 프린트물, 그림, 동영상물 등. 이와 같이 대학 관련 기록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로서의 하바드대학 아카이브즈는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 그것을 토대로 하여 계승·발전해 가는 하바드대학의 존재를 증명하고 존재의 이유와 필요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다양한 대학 사무실의 행정 기능을 보조하고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하바드대학 아카이브즈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아래 대학 기록물 관리실(the Records Management Office, 약칭 RMO)을 두고 있다. RMO는 단순히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대학 사무실의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 기록물 관리실이 하는 일은 체계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보존의 필요가 있는 정보는 아카이브즈로 이전하여 관리함으로써 필요시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기본적인 사명은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기록물(정보)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대학 행정실의 임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RMO는 대학 기록물 센터(Record Center for the Storage of Information)를 운영한다.

RMO는 1995년 3월, 대학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장물에 대한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 기록물 관리체계(General Records Schedule, GRS)와 특수 기록물 관리체계(Special Records Schedule, SRS)를 제정하여 대학 기록물들을 관리할 총괄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GRS는 대부분의 대학 사무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 기록물들에 대한 보유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SRS는 RMO의 아키비스트가 특정 부서만의 독특한 기록물이나 GR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 운영하는 특별 관리체계이다. 대학의 기록물들은 하바드대학교 아카이브즈가 발행한 GRS나 SRS에 의해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하바드대학 아카이브즈는 행정상 그 위치가 대학 도서관

의 한 부서로서 도서관 체계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대학 전체의 포괄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총괄 지휘하는, 그 기능상의 독자성과 권한을 갖고있다.

일층 성장하게 된 대학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사 편찬을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으로 연결된 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경대학은 12년간이나 걸친 동경대학 백년사 편찬 사업의 결과 수집한 대학 관련 자료가 학교사 편찬 작업이 종료된 후 흩어질 것을 염려하여 대학 아카이브즈를 신설하게 되었다.²⁰⁾ 동경대학교는 대학 상설위원회로 '동경대학사료 보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사 편찬을 계기로 하여 수집된 제 자료를 보존·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사 편찬에 사상사, 정신사, 사회사 등의 방법론을 도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반영"되어 대학 아카이브즈가 영구적 시설로서 각 대학에 탄생하기에 이르렀다.²¹⁾

동경대학 아카이브즈는 그 기능을 관리, 홍보, 조사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수행한다. 먼저, 관리 기능은 동경대학 관련 기록물 등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때 대학 아카이브즈의 관리 대상이 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운영의 역사를 시사하는 공적 문서, 부책, 사무기록, 기타 문서
- 2) 대학 내 제 기관의 의사록, 의견서, 답신, 보고서 등

20) 김기석,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 현지 조사 결과 보고」,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기록관리실, 1999. 5, 18 - 19쪽

21) 澤木武美・鈴木秀幸・中野 實・日露野好章・松崎 彰, 「大學史編纂と資料の保存」『記録と史料』, 全國歴史資料保存利用機關連絡協議會, 1992. 8, 36 - 40쪽

- 3) 대학이 간행하는 연보, 요람, 잡지, 신문, 홍보지 등
- 4) 대학졸업생의 졸업증서, 앨범, 강의 노트, 전기, 서간 등(해당 대학에 관계된 것)
- 5) 학장, 처장, 교수, 교직원 등이 사적으로 소장하는 대학 관계 문서
- 6) 대학설립자, 기부자, 졸업생 등 관계자의 문서
- 7) 대학역사를 나타내는 기장, 문표, 기념품, 상장과 상패, 기, 제복, 제모, 인장 등
- 8) 대학에 관련된 사진, 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
- 9) 대학사에 관한 제 간행 문헌
- 10) 학문사적인 의미를 갖는 실험기구, 연구실 제작품, 보고서 등²²⁾

홍보기능은 대학 아카이브즈가 관리하고 있는 대학관련 사료들을 열람케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활용한 신·중진 교직원에 대한 연수와 전시, 동경대학 관련 홍보뉴스 제작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기능은 아카이브즈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작업, 자료에 대한 레퍼런스 작성·출판 및 이러한 활동을 통한 자료 활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²³⁾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대학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관리기능을 기반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관리하고 있는 사료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조사연구와 홍보 기능, 기타 이용자들의 목적에 따른 추가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경대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대학 아카이브즈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사편찬 과정에서 발달된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상사·

22)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ブズ(archives)とはなにか」, 2-3쪽

23) 김기석,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20-23쪽

정신사·사회사 등의 방법론을 도입시키는 움직임이 반영되어²⁴⁾ 대학이라는 문화적 기관의 활동 기록을 증거하는 사료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일국의 문화사·학문사·교육사 자료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²⁵⁾ 이러한 기능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국가 주도로 서구의 문물을 수용·보급하는 가운데 고등 교육 기관을 집중 육성·발전시킨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서구 대학 아카이브즈의 경우에도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 대학 아카이브즈가 이러한 특성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외국의 대학 아카이브즈는 일반적으로 경제부흥에 힘입은 대학의 급속한 성장이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대학의 존재와 위상을 알리기 위한 특정 기념식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존재를 증명할 역사, 즉 학교사 편찬 작업이 초석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대학관련 기록물과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대학의 존재와 관련하여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보존·활용할 필요가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아카이브즈가 소장하는 기록물 사료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는 해당 대학 자체의 연혁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교사편찬 작업으로부터 아카이브즈로 발달되어 가면서 소장하게 된 대학관련 기록물·사료들은 일국의 문화사·학문사·교육사 자료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사회사·학문사 연구를 위한 사료의 보고(寶庫)가 되었다. 또한 대학의 졸업증서·재학·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보관은 대학 아카이브즈가 개인의 이력을 확인하고 보존하

24) 澤木武美·鈴木秀幸·中野 實·日露野好章, 松崎 彰, 「大學史編纂と資料の保存」, 36 - 40쪽

25)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ヴズ(archives)とはなにか」, 4쪽

는 역할도 하게 하고있다.²⁶⁾

4. 우리 나라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 현황

우리 나라에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지난 1999년 1월, '관심있는 학자들과 해당 행정기관 실무자간에 수년간 지속된 공동 노력 끝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공포'²⁷⁾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대학 관련 자료나 기록물 수집의 필요성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들이 개교 '○○년사'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사 편찬을 추진하면서 교사편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다. 교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그 출발점이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만 해도 대학 내에 교사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 10년 교사 간행시마다 사료의 수집과 발굴을 반복하였으며, 우리 대학기록의 일부를 미국 공문서보관소(NARA)와 미네소타대학에서 수집해야 하는 역설적인 조건에²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대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매 10년마다는 아닐지라도 50년사, 100년사 등 교사 편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처음 교사 간행시 수집된 자료조차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교사를 편찬할 때마다 자료를 다시 수집해야 하는 수고를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관련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일부 대학에 교사 편찬과정에서

26) 같은 책, 4쪽

27) 김기석, 「아키비스트의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학연구』 창간호, 한국 국가기록연구원, 2000, 77쪽

28) 김기석, 「기록을 확대하면 역사가 앙갚음한다 : 대학사고의 존재이유와 사명」 『대학교육』 통권 95호, 1998. 9, 2-3쪽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곧 ‘교사자료실’로, 이곳에서는 주로 각 대학의 연혁사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수집·보관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목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많은 대학들이 40년사, 50년사, 80년사, 100년사 등 교사를 편찬하였거나 편찬 작업 중에 있다. 이들 대학 가운데 몇몇 대학이 교사 편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교사자료실’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학 상설기구로 교사자료실을 두고있는 곳은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네 학교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그 기능과 활동이 활성화된 곳이 고려대학교의 ‘교사자료실’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역사자료실’이다. 고려대학교는 1979년 중앙도서관 열람과에 교사자료실을 설치한 이래 1986년 〈교사자료 수집의 촉진 방안〉이라는 지침서를 제정하고, 모든 학교 관련 자료를 가운데 사료가치가 현저한 것을 엄선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1998년 교사자료실을 설치하고 교사자료 전시관도 개관하였다. 1999년에는 교사자료전시관을 확장 개관하는 등 교사 자료의 활용을 통한 학내·외 홍보와 정체성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100년사 편찬과정에서 학교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던 이화여자대학교는 1989년 10월 이화역사자료실을 설치하고, 설치 직후인 1990년 3월,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모든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이화역사자료실로 이전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모든 행정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그 종류와 주요 내용을 자료실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 교사자료실 가운데 대학 관련 자료

들에 대한 총괄적인 수집과 관리, 보존을 책임지는 대학 아카이브즈에 근접한 형태로 규정이 정해져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이들 대학의 교사자료실도 그 동기가 각각 개교 90주년과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교사편찬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주로 대학의 연혁사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관련 자료의 총괄적인 수집과 보관, 관리를 책임지는 대학 아카이브즈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대학 관련 자료의 보존 실태에 전환점이 된 것이 곧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공포였다. 평소 역사적 자료나 기록물의 수집과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원을 모태로 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기관 실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특히 1999년 1월에 위의 법안이 공포되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공립대학은 법령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관'²⁹⁾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새로운 학문분야로 등장하게 된 '기록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학 아카이브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하여 행사이후 자료가 흩어져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학기록 보존과 관리제도를 구상하여 1998년 4월, '대학 기록 관리실'을 상설기구로 설치하였다. 1999년에는 상기 법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학 기획실 아래 대학자료실을 두고 「서울대학교 기록보존사업에 관한 연구 보고서」,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 현지조사결과보고」등을 제출하는 등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대비하여 '자료관' 설치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29)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는 '자료관'이라는 명칭 사용

연세대학교에서도 '연세대학교 100년사'를 발간한 것이 모태가 되어 1999년 1월 '연세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기록보존소 규정'을 제정하여 대학 기록물에 대한 총괄적인 수집과 관리를 시작하였다. 기록보존소 규정에 의하면, 연세대학교의 대학 기록물 관리는 연세기록보존소가 학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게 되어있다. 그 구성은 소장과 사서·학예연구원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기록보존소가 역사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할 수 있도록 부총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정보통신처장, 중앙도서관장, 연세기록보존소장, 박물관장, 의과대학 의사학과장, 총장이 임명하는 3인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와 연세기록보존소장, 기획실 1명, 총무과 1명, 중앙도서관 1명, 기록보존소 1명, 박물관 1명, 의사학과 1명,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다 본격적인 근대적 대학 아카이브즈의 기능을 기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강대학교와 한신대학교도 1999년, 각각 "서강대학교 기록보존소(Archives) 설립 제안서"와 "한신대학교 기록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각각 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대학 40년사 준비작업과 함께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계획하였는데, 두 작업은 2000년 초 40년사 편찬 작업이 종료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에서도 1999년 8월 박물관 산하 상설기구로 '인하역사자료실'을 설치하고 9월부터 자료조사 및 이관업무를 시작하였다.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위한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예관법률>이 공포되면서부터 본격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학교사를 편찬하였던 경험이 깔려있다. 교사편찬 경험이 축적되면서 심화된

교사 연구를 위한 분석시각과 방법, 기념일 등에 기획하였던 교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사진집 간행, 전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학 사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사 자료가 단순히 각 대학의 자료가 아니라 직접적인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위한 팔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현황으로부터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 2000년도부터 '자료관'을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 대학이 당면한 제 문제이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관심있는 학자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위한 교내 홍보와 기초 기구가 기획실 산하에 구성되어 있거나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부기록보존소 안(案)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대학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제도나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담기구 설치문제, 기록관리 전문인력 충원문제, 기록 보존 시설 및 공간 확보와 기록의 활용방안 등, 현행 문서관리 관행과 큰 마찰이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대학 아카이브즈를 구축해가야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³⁰⁾ 2000년도 법안의 시행과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공립대학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포를 전후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타 사립대학들이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조직 구성·운영 방안, 행정상의 위치, 관계자들, 기록물의 수집과 처분·관리·보존 방식, 기록물 보존소 등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에 실

30)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사료실, 「서울대학교 기록보존사업에 관한 연구」(재판), 1999. 2. 26 - 30쪽

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에 많은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5월 정부기록보존소의 공공기관의 자료관 설치·운영지침 안이 배포되어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령 내용 이행에 따른 규제와 마찬가지로 지침서 역시 참고 사항 정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작업의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관계자들의 공동 토론과 다양한 협조하에 기본방향을 설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이 글을 쓴 의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 편찬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과 연계시켜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대학에서 교사가 편찬되었으나 단발성 기획사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편찬의 경험은 처음에는 단순한 연혁사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다양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교사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대학 관련 기록과 자료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고 존재 이유를 논리화하는 작업을 동반함으로써 대학 아카이브즈의 필요를 낳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교사 편찬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록물 수집과 보존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현재화된 예는 극히 적다. 교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연혁사 관련 자료는 곧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 그것도 기왕에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일조차 아직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니, 행정적 문서를 포함한 기타 대학 관련 기록물과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기록관리, 특히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제 그 초석이 마련된 마당에 대학의 교사편찬 경험을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우리 나라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의 기본 방향

이 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이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첫 걸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보화사회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오늘날 각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직면하여 그 정체성 정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곧 대학 아카이브즈의 기본적인 기능 - 대학의 존재와 존재이유를 증거하는 - 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예관법>시행을 놓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공공기록에 대한 수집과 보존, 관리에 대한 관심을 대학 아카이브즈의 필요와 기능·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키는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경험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필요를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교사편찬 경력을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으로 연계시키는 일이다. 이 일은 우선적으로 법령이 시행되는 2000년도부터는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하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화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령 시행에 따른 원칙적인 의무사항이 유보될 여지가 있는 사립대학에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일은 첫 번째에서 지적한 대학 아카이브즈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미 교사 편찬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는, 교사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사를 간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료를 수집·발굴하는데 따른 제 문제들을 지적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대학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를 인식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일은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그리고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각 대학의 인식 정도에 따라 상설적인 ‘교사자료실’ 형태로 또는 직접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상설적인 교사자료실의 형태로 교사편찬의 경험이 현재화되는 경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른바 학내 민주화와 관련하여 학교측이나 학생, 모두 학교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곧 교사·연혁사·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대학과 관련된 기록물·자료에 대한 수집과 보관·관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으로 연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현재 우리 나라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 현황과 관련하여 모색해야 할 것이 곧 대학 아카이브즈를 설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학 아카이브즈를 조직할 것이며, 그것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 대학 아카이브즈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실질적으로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대한 대학들 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나라 대

학 아카이브즈의 상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 부기록보존소의 안을 토대로 하여, 대학 아카이브즈의 조직과 기능·구성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차후의 과제로 돌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기본 방향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른 특정한 사명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또한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이용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갖고 공개 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즉 자료 관리(Record Management)의 목적과 자료관리 프로그램(Record Management Program), 자료 이용규칙 등을 명확히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중요한 기능 - 자료의 수집과 선별·보존·처분, 아카이브즈에 대한 통제·활용방안 제고 등, 아키비스트의 역할 - 역시 명문화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 아카이브즈라는 특성상 갖게 되는 '교육'기능과 기타 행정적 보조기능에 대하여도 그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 도서관·박물관 등의 역할과 구분되는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 장비·기자재 등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아카이브즈의 기능과 자료의 보존, 자료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 초기부터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실정 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 목적에 입각하여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는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 아카이브즈가 설립되어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언급해야 할 것이 대학 아카이브즈의 행정상의 위치와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함으로써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고 대학의 학문적 연구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대학 아카이브즈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 최고 행정권자 직속으로 독자적인 독립기구로 설립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 중앙도서관이나 대학 박물관에 한 부서로 위치한다. 이 경우에도 대학 아카이브즈의 운영은 법령이나 정부기록보존소 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학 기획실의 한 부서로 소속되기보다는 연세대학교의 기록보존소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타 공공기관과는 구별되는 대학의 특성상 효율적인 대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주요 행정권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야 할 것이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은 물론, 그 구성에 대하여도 각 대학별로 자기 완결적인 작업체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간의 긴밀한 연계·제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을 활성화시키는 데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자료 작업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Way to Activate the Establishment of Academic Archives

Jeon, Sang – Sook

This paper seeks to activate the discussion on the 'University and College Archives', which are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the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going to be enforced from 2000. For this purpose, we need to know about the university archives: what is university archives, how that was developed, and what's the meaning of university archives in academic society. Because we can find out exactly the flaw of the discussion on university archives, having been discussed nowadays, get to know the problems, and can seek the desirable directions to establish university archiv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archives.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has rapidly improved so that there should be no objection to the premise that we need to preserve, manage, and utilize public records in order to let democracy take root in our society. In the same vein, to preserve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university which ha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will serve as a foundation to fix the identity of the university by recognizing the socio-political functions of the university and culture of it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he records to be preserved in the archives, especially university archives, which include various aspects of the university and students, will promote the democratization of the university itself which has been questioned in several universities recently.